

## 호남본부, 관내 '(舊)철도노선 터널' 본격 개발

- 활용도가 높은 페터널을 선별해 일반인 임대 추진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 관내 철도개량 공사로 발생한 (舊)철도노선의 사용하지 않는 터널 중 활용가치가 높은 곳을 별도로 선별, 일반인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호남본부 관내에 사용되지 않는 터널은 호남선 구진터널, 전라선 오관터널, 경전선 모산터널 등 총 3개 노선의 15개 터널로 이 중 전주시 소재 이중1·2터널 및 여주시 마래터널 등 3곳은 현재 관광레저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임대 중에 있다.

본부는 페터널의 위치, 안전성, 접근성 등을 모두 고려, 활용가치가 높은 터널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영화 사업·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버섯재배·농작물 저장소, 또는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에 위치한 페터널은 연중 평균 기온이 일정한 저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바로 활용이 가능해 일반부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활용성과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부는 활용성이 높은 유휴부지를 이용한 수익창출로 건설부채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舊)철도노선의 터널 임대를 희망하는 국민은 공단 홈페이지(www.kr.or.kr) 정보마당 및 공지사항에서 터널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호남본부 담당부서를 통해 임대 용도와 세부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필요시 현장설명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 페터널 현황

• 총 15개소(호남선4, 전라선7, 경전선4) 중 전라선 3개소 임대 완료

구분	소재지	터널명	연장(m)	형식	비고
호남선	영산포~다시	구진	135	말굽형	
호남선	동탄~명산	운동	141	말굽형	
호남선	동탄~명산	망영	123	말굽형	
호남선	동탄~명산	백락	116	말굽형	
전라선	전북 완주군 상관면	오관	400	말굽형	
전라선	전북 남원시 대신면	교룡	210	말굽형	
전라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이중1	177	말굽형	레일바이크 임대
전라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이중2	137	말굽형	레일바이크 임대
전라선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신리	255	말굽형	
전라선	여주시 오림동	오림	389	말굽형	
전라선	여주시 만흥동	마래	630	말굽형	레일바이크 임대
경전선	순천시 해룡면	모산	45	말굽형	
경전선	광양시 광양읍	동일	130	말굽형	
경전선	광양시 광양읍	쌍고	141	말굽형	
경전선	광양시 광양읍	석정	301	말굽형	

## 건설현장 임금체불 17건 21억원 즉시 해소!

- 명절 전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조치 시행 -

기획재정부(본부장 박인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전국 317개 전체 철도건설현장에 대해 공사대금 일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체불된 하도급대금 및 임금 등 약21억4,700만원을 적발해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원청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건 7건, 하도급사의 장비, 자재, 노임 체불건 7건과 불공정 계약 행위 3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부도 등)로 발생된 건설 노임 체불 약 3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원도급사 대납 등으로 전액 지급조치토록 시행해 철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했다.

본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철도 현장의 임금체불을 사전 점검하고 해소함으로써 임금 체불이 없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올해 수도권 철도망 확충 위해 2조 4천877억원 투입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수도권 철도망 구축을 통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대와 수도권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보다 58%증가한 2조 4,877억원의 철도사업비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수인선 송도~인천 복선전철 등 26개 건설사업 추진과 4호선을 연장하는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등 3개 사업 착공에 2조 4009억원, 환승시설과 안전시설 확충 등 시설개량사업에서 86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본부는 상반기 중 올해 사업비의 63.6%인 1조 5267억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으로 생산유발효과 4조 8678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만 758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대도시권 철도망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민들과 약속한 2016년 신분당선 정자~광고 구간, 수인선 송도~인천 및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을 적기 개통하고자 안전·품질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강원본부, 설 명절 전 사업비 2천997억원 쏟아.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사업비 2,997억원을 집행해 관내 철도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건설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본부는 원활한 자금집행을 위해 별도 지원반을 구성, 운영 중이며 계약자가 선금 및 기성금 요청 시 즉시 집행해 하도급사, 장비·자재납품사 대금 및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노임까지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여부 확인업무도 더욱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본부는 자금 집행 후 대금지급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하도급 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여부와 함께 근로자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설 명절 전 자금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건설근로자까지 모두가 즐거운 설명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설명절 대비 자금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건수	지급금액	비고
계	39건	299,740	
원주~강릉 철도건설	26건	188,092	
원주~제천 복선전철	7건	46,794	
도담~영천 복선전철	4건	63,628	
경북선 철도이설	2건	1,226	

## 경제활력 회복 위한 찾아가는 토론회 개최

-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조기집행 위해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지난 3일 서울 대한건설협회관에서 철도건설 분야 협력업체 관계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솔한 의사소통을 통해 재정조기집행 및 원·하도급 동반성장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한마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공단의 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철도 사업비 총 7조 9,786억원중 62.15%인 4조 9,585억원 집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협력사들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개선중인 종합심사낙찰제에 중견기업의 참여기회 확대와 운행선 공사 시 안전관리비 효율 향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단은 역사사지의 마음으로 '甲과 乙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사 관계자는 "발주처와 협력사 모두 힘을 모아 경기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때"라며 "앞으로 공단과 함께 손잡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공단과 협력사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공사임금 체불 해소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를 공유하고 특히 철도건설현장에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이 법적으로 정한 기한보다 5일 이상 조기에 지급돼 임금체불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풍토가 철도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 공단-건설업계, 동반성장 위한 노력 가속화

- 올해 3번째 '찾아가는 간담회'... 공단과 업계 상생발전 기대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건설업계의 의견수렴 및 공단의 입찰/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달 22일 대한건설협회와 '찾아가는 간담회'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국내 하도급사를 대변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직접 방문해 협회 임원진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원·하도급사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발주 확대 ▲하도급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건설공사분리발주 활성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종합심사낙찰제의 하도급 간접비 항목 추가 ▲하도급실태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본부는 갑(甲)과 을(乙)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 역사사지(易地思之)를 넘어 역지감지(易地感知)의 마음으로 개선이 가능한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공단과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불법하도급 제로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활성화를 우선 순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도 양 기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건설사업관련 현안협의 및 정보공유를 수시로 시행하기로 했다.